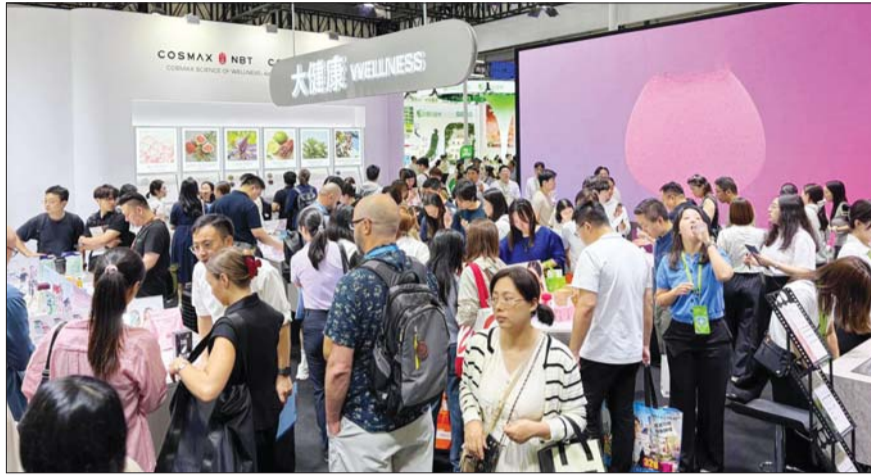


기술력 높이고 생산력 늘리고 K-건기식, 글로벌 영토 확장

콜마비엔에이치, 영업익 189% ↑
‘헤모힘’ 라인업 확장 등 성장 견인
코스맥스그룹, 호주·중서 성장세
‘HNC 2026’ 참가해 기술력 알려
노바렉스, 역대 최대 분기 실적
중 과징시장서 기업 입지 다져
내년 오송2공장 완공... 생산력 ↑



코스맥스그룹은 지난 15~17일 사흘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건강기능식품 B2B 박람회 ‘HNC 2026’에 참가했다고 23일 밝혔다. /뉴시스

국내 건강기능식품 제조·생산·개발(ODM) 업계가 중국, 미국 등 글로벌 영토를 확장함과 동시에 소비자 경험을 극대화한 첨단 제형 기술력을 선보이며 경쟁하고 있다. 업계 선두 주자인 콜마비엔에이치, 코스맥스그룹 등에 이어 후발 주자 노바렉스까지 차별화 전략을 앞세워 글로벌 웰니스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고 있다.

23일 국내 건강기능식품 ODM 업계에 따르면, 콜마비엔에이치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369억원, 영업이익 103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했으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89% 늘었다. 당기순이익 역시 224억원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이러한 호실적에는 내일 경영과 생산 최적화가 주효했다. 선제적으로 투자가 이뤄졌던 세종3공장 등의 가동률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고정비 부담이 완화됐고 원가 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성과다. 또 글로벌 메가 히트작인 ‘헤모힘’의 라인업 확장과 수익성이 높은 신규 해외 대형 거래선 확보가 맞물리며 질적 성장을 견인했다.

콜마비엔에이치 측은 “원료 및 제형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천연물 소재 연구 역량을 고도화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넓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스맥스그룹은 건강기능식품 사업에서 투트랙 전략을 펼친다. 코스맥스엔비티는 1분기 933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전년 동기 대비 29.2% 성장했고, 순이익은 91억원을 올렸다.

한국법인이 국내 신유통 채널 진입 가속화로 40.6% 성장한 가운데, 호주법인 또한 오더 흐름 회복세에 힘입어 82.1% 급증했다. 그룹 내 또 다른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맡고 있는 코스맥스바이오 매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28% 늘어 479억원이다. 순이익은 13억원이며 특히 중국 현지 프로모션에 적극 대응하며 흑자 기조를 공고히 했다.

코스맥스그룹은 이달 15~17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건기식 박람회 ‘HNC 2026’에 대규모 공동 부스를 마련해 글로벌 바이어들과 적극 소통했다. 독자 개발 원료인 Re:PDRN, AGEs Blocker 등을 비롯해 목 넘김을 개선한 초소형 정제 기술 아담, 구강용해제형 스텝 등을 총망라해 선보였다.

아울러 이번 현장에서 코스맥스엔비티와 코스맥스바이오는 ‘스마트 제조 기술 혁신 선도 기업상’을 공동 수상하며 압도적인 경쟁력을 입증했다.

노바렉스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1208억원, 영업이익 141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경신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3.2%, 영업이익은 68.0% 급증했으며 영업이익률은 11.71%로 뛰었다.

이중 국내 매출은 30.4% 성장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신규 진

입하는 초기 사업자들을 정조준해 맞춤형 기획과 개발을 전개하고 있다. 해외 시장 역시 전년 대비 38.5% 증가한 435억원의 매출을 냈다.

특히 중국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활용해 해외제품을 수입하는 과정 시장에서 기업 입지를 다졌다. 중국 대형 고객사들과 실시간 생방송을 연계하는 마케팅을 펼치는 한편, 시장의 판도를 바꿀 ‘10대 제제기술’을 공개하기도 했다. 즉각 상용화가 가능한 고부가가치 기술에 중점을 뒀다.

이와 함께 노바렉스는 생산 역량을 확대해 글로벌 시장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오송2공장이 오는 2027년 완공되면 연간 생산능력이 기존 5000억원에서 1조원 규모로 수직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유통 업계는 “과거에는 좋은 원료를 캡슐에 담아내는 수준에 그쳤다면, 이제는 제형 제제 기술은 물론 신유통 트렌드와 소비자 취향에 얼마나 민첩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가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며 “건강기능식품 부문 자체만 놓고 봐도 전 세계 웰니스 시장으로 브랜드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수분 가득 ‘3C-히알루론산’ 여름철 피부 열감 낮추세요”

아모레퍼시픽 ‘프리메라’
세럼·겔 마스크 제품 선봬
같이 쓰면 수분 지속력 2.4배 ↑



프리메라 ‘3C-히알루론산’ 신제품 2종.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은 고효능 저자극 브랜드 프리메라에서 ‘3C-히알루론산’ 제품군을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여지는 제품들은 히알루론산과 3가지 핵심 성분인 카페인, 세라마이드, 사기를 복합 처방해, 강력한 보습 효과를 갖췄다.

‘3C-히알루론산 하이드레이션 써지 세럼’은 피부 각질 20층을 관리할 수 있다. 피부 수분을 유지하면서 속건조를 개선하고 피부 장벽을 강화해 준다. 또 멘톨 성분 없이 수분만으로 냉각 효과를 구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인체적용시험에서 해당 제품 사용 직후 피부 온도는 6.6℃ 낮아졌다.

함께 출시되는 ‘3C-히알루론산 세럼 메가샷 겔 마스크’는 별도 지지체나 불순

물 없이 세럼 한 병을 그대로 굳혀 만든 겔 마스크이다.

특히 3C-히알루론산 세럼 사용 후 겔 마스크를 함께 사용할 경우, 마스크 단독 사용 대비 수분 지속력이 2.4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두 제품을 함께 사용할 때 더욱 효과적인 것”이라며 “고기능성 세럼 제품들을 지속 완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 현장역량 강화

식약처와 ‘의약품 GMP 세미나’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오는 7월 13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에서 ‘의약품 GMP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 의약품 제조소의 제조·품질 담당자 100명을 대상으로 열린다. 의약품외부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을 공유해 실무에 필요한 요구 사항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세미나는 식약처의 ‘의약품 GMP 정책 소개’를 시작으로 현장에서 활용 가능

한 실질적인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또 ▲의약품 GMP 문서·기록 관리의 이해와 실무 ▲의약품 GMP 제조관리 이해와 주요 고려사항 ▲의약품 GMP 품질관리의 이해와 주요 고려사항 등 현장자들의 강연도 이어진다. 각 강연에서는 표준작업절차서(SOP) 관리, 제조·시험기록서 작성 및 관리, 시험검사 및 출하관리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진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의약품 GMP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품질관리 체계”라며 “업계의 GMP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적용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알에프바이오, 메디컬 에스테틱 경쟁력 알려

‘AMWC KOREA 2026’ 참가 성료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기업 ㈜알에프바이오가 19~20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AMWC KOREA 2026’ 참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3일 밝혔다.

AMWC KOREA는 세계 미용의학 및 안티에이징 분야 전문가들이 최신 임상 트렌드와 시술 경험을 공유하는 국제 학술 행사로, 올해 한국에서 처음 개최됐다.

알에프바이오는 이번 행사에서 단독 부스를 운영하며 내년 출시 예정인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필러 (YOUTHFILL PN+)를 중심으로, 히알루론산 필러 (YOUTHFILL HA), 콜라겐 스티뮬레이터 (YOUTHFILL CA)와 화장품 등 핵심 제품 포트폴리오를 선보였다. 부스방문객들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메디컬 에스테틱 솔루션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YOUTHFILL HA의 임상 활용 사례가 소개되며, 알에프바이오의 기술력과 제품 포트폴리오 전략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최근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은 비수술적 시술, 피부 재생, 복합 시술 프로토콜



알에프바이오는 AMWC KOREA 2026에 참가해 단독 부스를 운영했다. 해외 의료진들이 HA 필러, PN 기반 제품, 스킨부스터 등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알에프바이오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AMWC KOREA 2026 역시 스킨부스터, 엑소좀, 콜라겐, 비수술적 미용의학, 병원 경영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글로벌 미용의료 산업의 주요 흐름을 반영했다.

장동민 해외영업팀장은 “AMWC KOREA 2026은 한국 미용의료 산업의 위상과 알에프바이오의 제품 포트폴리오 경쟁력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제품 포트폴리오, 학술 교육,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 세계 의료진과의 접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동아에스티-연세대 디지털헬스 경쟁력 확보

동아에스티가 디지털 헬스케어 부문에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 예방, 진단, 치료, 관리 등을 아우르는 통합 의료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 경쟁력 제고가 핵심이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16일 서울 서대문에 위치한 연세대학교 디지털헬스센터에서 연세대학교 디지털헬스연구원과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의료 분야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활용 연구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및 실증 등에서 협력한다.

특히 디지털 표현형 및 디지털 바이오 마커 연구 체계 구축, 의료 데이터의 임상적 가치 검증, 개인건강기록(PHR), 병원정보시스템(HIS), 의료기기 및 디지털 헬스 솔루션을 연계한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유한양행, 고셔병 적응증 희귀의약품 지정

YH35995, 유럽의약품청 ODD 받아
10년간 시장독점권 등 인센티브 제공

유한양행은 고셔병 치료제로 개발 중인 신약 후보물질 ‘YH35995’가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고셔병 적응증에 대해 지난 19일 희귀의약품 지정(ODD)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YH35995의 이번 EMA 지정은 앞서 지난 4월 미국 식품의약품(FDA)으로부터 획득한 희귀의약품 지정에 이어진 성과다.

EMA 희귀의약품 지정 품목은 개발 단계에서의 과학적 자문, 규제 절차 관련 수수료 감면, 시판허가 승인 시점부터 10년간 시장독점권 등 다양한 개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유럽은 미국(최대 7년)보다 긴 10년의 시장독점권을 보장하며, 지정 시 EU 회원국 전역을 포괄하는 중앙집중심사 절차를 통해 단일 허가를 추진할 수 있다.

고셔병은 GBA1 유전자 변이로 리소좀

효소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당지질의 일종인 글루코실세라미드(GL-1)가 여러 장기에 쌓이는 유전성 리소좀 축적 질환(LSD)이다. 간 및 비장 비대와 빈혈, 혈소판 감소, 골격계 이상 등 전신에 걸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이 중 신경증상을 동반하는 제3형 고셔병은 해당 증상을 표적으로 한 허가 치료제가 아직 없어 미충족 의료 수요가 특히 높은 것으로 꼽힌다.

YH35995는 유한양행이 2018년 GC녹십자와의 공동연구로 확보해 현재 단독 임상 개발 중인 경구용 저분자 글루코실세라미드 합성효소(GCS) 억제제로, GL-1 생성을 줄이는 기질감소치료(SRT) 계열 치료제다. 최대 특징은 우수한 혈액 뇌장벽(BBB) 투과력으로, 전임상 연구에서 혈장과 뇌 내 GL-1을 유의미하게 낮추는 효과가 확인됐다. 이를 통해 기존 치료제가 도달하기 어려웠던 중추신경계까지 약효를 전달할 수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